

전남광주 주요 기업 산재보험료 부담 커진다

기아오토랜드 광주 3년 새 18.1%↑…한전KPS도 증가 건설사 보험급여 급증…산재 발생·안전관리 점검 필요

전남광주에 기반을 둔 주요 기업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오토랜드 광주의 보험료 부과액이 3년 새 18.1% 증가했다. 한국전력은 전년 대비 3.3% 늘었는데 특정 기업의 산재보험료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 발생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오토랜드 광주의 산재보험료 부과액은 113억2900만원으로 전국 상위 50개 기업·사업장 가운데 36위였다.

기아오토랜드 광주의 보험료는 2022년 95억9600만원에서 2023년 110억5000만원, 2024년 112억3200만원, 지난해 113억2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8.1% (17억3300만원) 늘어난

규모다.

보험료 부과액 순위는 2022년 48위, 2023년 45위, 2024년 35위, 지난해 36위로 4년 연속 상위 50곳에 포함됐다.

전남광주에 본사나 주요 생산시설을 둔 기업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주에 본사를 둔 한전KPS의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161억8200만원으로 23위였다. 2022년 144억5800만원에서 2023년 151억6600만원, 2024년 157억78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3년간 증가액은 17억2400만원, 증가율은 11.9%다.

영암에 위치한 HD현대삼호는 지난해 112억2400만원으로 37위에 올랐다. 2024년 97억8200만원보다 14.7% (14억4200만원) 증가했다.

나주에 본점을 둔 금호건설의 지난해 부과액은 164억700만원으로 22위였다. 2022년 153억900만원보다 7.2% (10억9800만원) 늘었다. 다만 2023년 184억9200만원까지 증가한 뒤 2024년 163억560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18억7900만원으로 35위였다. 2022년 128억6200만원에서 2023년 121억5400만원, 2024년 115억300만원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년도와는 3.3% (3억7600만원) 늘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7.6% (9억8300만원) 줄었다.

전국 주요 건설사에서는 산재 노동자에

게 지급된 보험급여가 크게 늘었다.

연도별 보험급여 지급액 상위 10개 건설사의 합계는 2022년 1652억600만원에서 지난해 2829억6400만원으로 71.3% 증가했다.

포스코이앤씨의 지급액은 같은 기간 126억4500만원에서 323억5600만원으로 155.9% 늘었다. 한화는 104억100만원에서 216억1100만원으로 107.8%, 롯데건설은 150억4600만원에서 309억2300만원으로 105.5% 증가했다.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지급액 비율도 상승했다. 한화는 2022년 38.3%에서 지난해 96.6%로 58.3%p 높아졌고, 포스코이앤씨는 29.2%에서 73.8%로 44.6%p 상승했다. 대우건설도 46.4%에서 77.2%로

30.8%p 높아졌다.

박해철 의원은 “주요 건설사에서 산재 보험급여 지급액이 불과 3년 만에 70% 넘게 증가했다”며 “특히 보험급여 지급액뿐 아니라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까지 크게 높아진 기업들은 잦은 산재가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정부가 기업별 산재 발생과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산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 더욱 강도 높은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 포화

86% 저장율·건식저장시설 2030년 운영 목표 인허가·공사 지연·공백 등 비상대책 설립 필요

전남광주 영광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86% 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습식저장조의 포화 예상 시점과 이를 대체할 건식저장시설의 운영 목표가 모두 2030년으로 동일해 인허가와 공사 지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 저장률은 86.0%였다.

한빛원전 1~6호기의 저장용량은 총 9017다발이며, 현재 저장량은 7758다발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 저장률 84.5%보다 1.5%p 높아졌다.

호기별로는 3호기가 92.7%로 가장 높았고, 4호기 91.6%, 1호기 89.7%, 2호기 83.5%, 6호기 82.5%, 5호기 77.0% 순이었다. 3호기는 저장용량 1125다발 가운데 1043다발, 4호기는 같은 용량의 시설에 1030다발이 보관돼 있었다.

한빛원전의 습식저장조 포화 예상 시점은 2030년이다.

한수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부

지 내 4810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4253억원이며, 부지는 2발전소 뒤로 확정됐다.

한수원은 지난 4월 건식저장시설의 인허가를 신청했고, 6월에는 시설계획 초안을 제출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본공사는 2028년 착공해 2030년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기존 저장조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되는 해에 새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도록 계획돼 있어 일정 지연에 대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허가 심사와 주민의견 수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고려해 세부 일정과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원전도 저장 여유가 줄고 있다. 올해 6월 말 고리원전 습식저장조 저장률은 93.4%로 지난해 9월 말보다 각각 1.3%p, 2.9%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리·한빛·한울 등 세 본부의 저장률은 총 541다발 늘었다.

한울원전 역시 습식저장조 포화 예상 시점과 건식저장시설 운영 목표가 모두 2031년이다. 고리원전은 건식저장시설

운영 목표가 2031년이지만, 2032년 포화 전망은 고리 2호기의 조밀저장대 설치 완료 전제로 한다.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2028년 포화가 예상돼 설치 일정과 자연 시 대응계획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건식저장시설 운영 이후의 장기 안전관리도 과제다. 고준위원전에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 목표를 2038년으로 제시하고, 2050년 이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이전 처분시설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간저장시설이 계획대로 운영되고 원전 부지에서의 반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더라도 2030~2031년 운영을 시작하는 건식저장시설은 20년 안팎 또는 그 이상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장용기와 구조물이 오래되면서 발생하는 성능 저하를 관리하고, 장기 검사체계와 지진·침수·화재 대응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해철 의원은 “건식저장시설의 인허가 신청 등 후속조치가 진전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포화 예상 연도에 맞춘 운영 목표만으로는 지연 위험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적인 안전성 심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저장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세부 일정과 비상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HD현대삼호는 최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학본부에서 발전기금 기탁식을 열고 3000만원을 전달했다.

HD현대삼호, 조선 인재 육성 뒷받침

목포해양대·목포대에 각 3000만원 쾌척

HD현대삼호가 지역대학에 총 6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하며 조선산업 인재 육성 및 산학협력 강화에 나섰다.

HD현대삼호는 최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학본부에서 발전기금 기탁식을 열고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탁식에는 김환규 HD현대삼호 생산본부장 부사장과 최부흥 국립목포해양대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D현대삼호와 국립목포해양대는 오랜 기간 지역인재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발전기금은 대학의 교육·연구 개선과 인재 양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HD현대삼호는 향후 국립목포해양대에도 발전기금 3000만원을 출연하는 등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부흥 총장은 “지역 대표 기업인 HD현대삼호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발전기금을 교육·연구 개선과 인재 양성에 소중히 활용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환규 부사장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과 기술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아카데미홀 대관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